

'육계산업의 어제와 오늘 살피고, 내일을 내다본다'



발전사·현주소·미래방향 순 진행 완전수직계열화 도입 후 상업화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주)하림 육계,삼계,토종닭 계열화 사업농가 대상으로 '사료질적관리 및 차단기 사고 대책과 육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3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는 (주)하림 대표이사 이문용, 1본부 본부장 겸 부사장 정문성, 사육부 이사 조현성, 기획실 정호석 상무, 수석부장 김용진, 사육농가 협의회 회장 이광택 및 최형기의 21직원과 장양원 대행업자와 18명 등 400여명 참석하는 가운데 성대히 세미나가 치러졌다.

이 세미나 개최 취지는 지난 번 육계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재차 (주)하림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육계산업의 발전사와 향후 양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주)하림과 사육농가 간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다짐/각오를 다 질수 있는 자리다.

이날 행사 일정은 제1부, 제2부 교육 후 제3부 식사와 토론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제 1부 행사에는 조현성 이사가 '사료질적 및 전기사고 예방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했다.

▲ '육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문용 (주)하림 대표이사)

이 강의 내용은 '육계산업의 발전사, 육계산업의 현주소 및 육계산업의 미래방향' 순으로 진행했다.

첫째로 육계산업의 발전사는 살펴보면 태동기(1960년 이전, 폐계이용시대)는 소규모 방사형태의 사육이 이루어지면서 채란계, 노폐계 이용시대에면서 육계업의 전문업종 태동기라 볼 수 있으며 1930년대 계란10알(50전)=소고기 600g(1근)이고 닭1마리(2원)=소고기 2.4kg(4근)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후 기반조성기(1961년-1970년, 준 전문육계시대)는 닭고기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기통닭이 및 장작숯불구이 유행하면서 브로일러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본격적인 육계사육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성장기(1971-1980년, 전문육계시대)는 충분한 종계확보와 더불어 안정적 사료공급으로 1070년대 초기 축산업종 양계가 가장 유망하고

채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반면에 지나친 과잉생산으로 사료값은 2배 폭등한 상태에서 불경기까지 초래되고 아반도주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육계전용도계처리장 등장했고 사육수수(1070년 2천만수에서 1979년 1억4천4백만수-7배성장)의 눈부신 성을 가졌다.

완전 수직계열화 경영으로 계열주체에 의한 의사결정, 사육지도, 가격보장, 위험제거 등의 효과를 가지면서 종축,사료,약품,사육,상품화,유통,외식 단계 거쳐서 육계산업의 발전과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투기산업에서 유망산업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또 완전 수직계열화 사업 도입 후 상업화가 본격 시작되었고 30년의 역사로 분부신 성장을 해서 100년 역사의 미국에 근접한 결과를 가져왔으나 수급불균형과 가격불안정 및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등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

게다가 육계계열화 구조는 삼장통합(농장,공장,시장) 구조에서 하림공동체라는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로 육계산업의 현주소는 생산성에서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으며 사료요구율 1989년 2.04에서 2016년 1.54로 눈부시게 FCR이 감소했으며 하림과 미국알렌하림간 원가 비교해 보면 2010년도 525.85원 차액인데 비해서 2015년도 405.33원 차액이 나올 정도로 10년간 118원/kg GAP을 축소시킬 정도로 농가수준, 농가시설, 원재료 품질(FCR 0.19, 육성율 6%, 종란지수 9.2개 개선, FCR 2014년 이후 미국알렌하림을 역전시킴) 등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칭찬과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10년만에 농가당 수익이 2.3배 증가하면서 연간소득이 3억정도되면서 아들에게까지 권농을 할 정도로 양계사육의 규모와 현대화 등을 통한 기업형 사육농가가 많이 증가하면서 신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사육농가와 (주)하림 간의 농가상생협약식을 가지면서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상생발전으로 도산위기 ZERO화와 농가소득업계 1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육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인 사육변상금 100%방감,최소 사육비 지급, 기축공제 보험 일괄 가입,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하면서 사육농가 소득향상 프로그램인 2018 농가 평균 사육

소득 2억 달성, 농장 신 증축 지원프로그램 가동, 상생금융 에코캐피탈 설립운영, 경영분석/특별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서 하림 사육농가의 경영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셋째로 닭고기 소비증가와 성장잠재력이 쌀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소비량이 계속증가(탄수화물은 줄고 단백질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백색육 닭고기 산업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평가다.

또한 치맥과 치킨집의 카페전환을 통한 서비스 문화가 진화하면서 치킨메뉴의 다양화 맞물려서 인터넷쇼핑몰 및 홈쇼핑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개발(신선제품 530종, 가공제품 350종)되면서 고부가가치 친환경 닭고기와 (주)하림 대표브랜드인 자연실록 및 동물복지 닭고기 상품이 개발되어 육계산업 성장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트렌드(세계적인 추세)는 소통(SNS),윌링과 헬스(뷰티) 및 다양화(라이프스타일) 되어 있기에 1-2인 가구 증가와 일하는 고령층의 증가로 여기에 맞는 식품개발 및 홍보/영업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안전한 닭고기, 시스템 닭고기, 특별한 닭고기'를 개발 원칙을 가지고 쉽게 테이크 아웃할 수 있는 포장육 개발확대를 통한 닭고기소비촉진 및 판매매출 확장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도 한미 FTA 체결로 양허관세철폐(관세율0%)의한 수입육 점유율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기업은 다양한 제품개발, 소비촉진을 통한 시장 확대 ▲농가는 시설 개선, 규모화 재투자, 사육생산성 향상 ▲정부는 산업발전의 장애물 제거, 정책 지원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라고 말했으며 위기(FTA)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현재까지 2014년 국내 최초 육산물 미국수출, 삼계탕 중국 수출길 등 열렸다는 것이다.

한편, 조현성 이사는 "(주)하림은 사육농가와 공동 발전한다는 '상생협약서'의 목적에 맞게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2018년 사육농가 연간 조수익 2억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술레터'를 통해 새로운 양계지식을 공유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이문용 대표이사 이력

◆ 이력

- 1968년 제물포 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 1980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원 졸업
- 1976년 ~ 2001년 (주)빙그레 전무이사
- 1995년 ~ 1997년 (주)풀럼버스 대표이사
- 2001년 ~ 2002년 (주)하림 총괄 부사장
- 2002년 ~ 2003년 아주레미콘(주) 사장
- 2004년 ~ 현재 (주)하림 대표이사 총괄사장
- 현) 한국 육가공협회장, 현) 계육협회 이사
- 현) HACCP 인증원 이사

◆ 수상경력

- 최고경영자상, 대통령 표창
- 한국의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수상 하

